

2024년도 제2호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
여성 관상 수도자들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이정표입니다.
”

레바논: 청빈, 정결, 순명의 기쁜 삶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전화 02-796-6440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시시의 산타 크로체 수도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글을 씁니다. 성 프란치스코 성지와 아주 가까운 이곳에는 25명의 독일 여성 수도자들이 엄격한 봉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외부 담당 수녀'가 손님을 접대하고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나머지 여성 수도자들은 수도원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성녀 클라라의 모범에 따라 은둔과 청빈, 정결, 순명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할까요? 교회는 왜 세상과 동떨어져 보이는 이런 삶의 방식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장려할까요?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따르면 "이로써 봉헌 생활의

신분은 세례에 근거하며 하느님께 온전히 바쳐진 '더욱 깊은' 봉헌을 체험하는 생활 방식 가운데 하나로 드러나게 된다. 봉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신자들은 성령의 감도 아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기로 다짐하며,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애덕의 완성을 추구함으로써 교회에서 미래 세계의 영광을 예고하고 보여준다."(가톨릭교회 교리서 916항)

"하느님께 봉헌된 정결, 청빈, 순명의 복음적 권고는 주님의 말씀과 모범에 토대를 둔 것이며, ... 교회가 자신의 주님께 받아 주님의 은총으로 언제나 보존해 오는 하느님의 선물이다."(교회 헌장 43항)

여성 관상 수도자들은 하느님과 그들이 기도로 중재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 소중하고 좋은 것을 삶의 가장자리로 제쳐둡니다.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추고, 모든 이를 위하여 자신의 전 존재로 증언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여기에 영속하는 나라가 없어 미래의 나라를 찾아야 하므로, ... 수도자 신분은 또한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천상 보화를 모든 신자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얻은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증거를 드러내며, 미래의 부활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고하여 준다."(교회 헌장 44항) 여성 관상 수도자들은 중재 기도와 희생을 통해 사랑하는 영적 신랑에게 사람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바칩니다. 이들은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며, 우리는 하늘의 시민(필리 3,20 참조)이며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골로 3,2 참조)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이정표입니다.

수 세기에 걸친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삶의 방식이 교회와 세상을 위한 소중한 헌신임이 드러났으니, 전 세계 여성 관상 수도자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신비인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ACN 지도신부

안톤 레서

P. Anton Lester OP



한국지부 소식 지부장 편지

+ 알렐루야!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켄 로치(Ken Loach) 감독이 연출한 '나의 올드 오크(The Old Oak)' 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폐광촌 더럼(Durham)은 영국 광산노조 파업이 한창일 때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투쟁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금의 폐광촌에서 중년의 노동자들과 마을 주민들은 독재자 알사드 정권의 탄압에 고국을 떠나야만 했던 시리아 난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들도 약자인데 난민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에 중년의 노동자들과 마을 주민들은 심기가 불편하고, 난민들 또한 낯선 땅에서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린 희생양을 찾지. 사람은 원래 삶이 힘들수록 아래를 봐. 위를 올려 다 볼 수 없으니까. 증오는 강자를 향하지 않지. 약자를 낙인 찍는 게 더 쉬우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난민들에게 마음을 열고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선술집 '올드 오크'의 주인 'TJ'가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 소녀 '야라'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희망을 품는데, 희망은 믿음 위에 생겨요." 약한 자들이 서로 공생하고 연대함은 바로 용기, 믿음, 희망에서 비롯됨을 시리아 난민 소녀 '야라'는 알려줍니다.

니다. 그리고 'TJ'와 '야라'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희망의 밥상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들은 한 주에 몇 번씩 음식을 모아 마을 주민과 난민 아이들을 초대해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이 일로 마을 사람들과 난민들은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합니다. "When you eat together, you stick together." (함께 먹을 때 더 단단해진다.) 'TJ'는 '야라'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말을 건넵니다. 밥은 곧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인데 욕심을 부리며 혼자 먹는 것이 아닌 함께 나눠 먹어야 모두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을 주민들과 난민들이 함께 하는 밥집이 '올드 오크'에 마련되고, 화려한 시절의 광부 축제를 몇십 년 만에 재현하며 온 도시의 사람들이 거리행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ACN Korea 후원자 여러분! 후원자 여러분께 ACN의 2024년 ACN 사순 부활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교회의 수장 스페르티안 세부추크 상급 대주교는 전쟁으로 황폐된 우크라이나에 희망의 언어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너무나도 지쳐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전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큰 문제입니다. 인구의 약 80%가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은 이들의

영혼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버림받음과 타인에 대한 원망의 감정도 사회학적 전쟁 무기입니다. 모든 것을 타하는 사람은 쉽게 희생양을 찾지 마련입니다. 또한 공포와 증오가 우리의 결정을 지배할 때 우리는 이들의 노예가 됩니다. 증오는 공격에 대한 정상적 반응이지만 증오에 굴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증오가 승리하도록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인 72%의 실업률을 보이는 성지(聖地)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경제위기는 더욱 만연해지고 있으며, 관광 산업의 전면 마비, 대규모 해고, 극심한 이동 제한으로 인해 수입원을 잃은 수많은 가정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ACN의 현지 프로젝트 파트너는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고 말합니다. "거주지의 62%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부 국제기구와 유엔기관은 2023년도까지 재건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올해 사순 시기 담화에서 은총의 때인 이 사순 시기에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첫 사랑'의 자리인 '광야'로(호세2,16-17 참조) 우리를 이끄신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사순 시기의 두 가지 행동을 강조하십니다. 첫째, '현실에 눈 뜨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돌봄'입니다. '돌봄'은 '돌아본다'는 것과 닿아 있기에 '돌본다'는 것은 자기 주위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 옛날 이집트 종살이에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돌아보시며 돌보신 하느님처럼 우리도 오늘날 억압받는 수많은 형제자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말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멈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 안에서 멈추고,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다친 형제나 자매가 있는 곳에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어 손을 내미는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멈추지 않는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돌봄과 멈춤'의 연대는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Fr. Kisok John Pak



교황청 재단 가톨릭 사목원조 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id to the Church in Need
문의 02-796-6440, 010-7475-6440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가르멜 여성 수도자들 저의 소명은 사랑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모라망가교구의 가르멜 여성 수도원은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수도원 일부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로사리오 벨라 주교에게 수도원은 교구의 '영적 중심'입니다. 주교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일을 하지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성 수도자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처럼 저도 종종 수도원에 와서 많은 힘을 얻고 가지요."

주교는 가르멜 여성 수도자들이 보여주는 증거적 삶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일상은 아주 독특합니다. 때로 아주 필수적인 것조차 부족하지만, 이들은 커다란 기쁨으로 복음을 살아갑니다."

여성 수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거나 고민을 상담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마리 수녀원장은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께 받은 은총에 감사드리기 위해 다시 이곳을 방문하지요."

현재 이 수도원에는 18명의 여성 수도자가 살고 있으며, 젊은 성소자들도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온차가 고백합니다. "언젠가 가르멜 수도자가 되고 싶다는 나의 소망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쓴 <한 영혼의 이야기>를 읽으며 시작되었지요. 주님께서 이 소망을 이루어주시도록 많이 기도합니다. 수녀님들을 보면 나도 이들과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성녀 데레사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저의 소명은 사랑입니다. 어머니이신 교회에서 저는 사랑이 되고자 합니다.'"

수녀원장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교회의 관상 생활에 동참하고자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젊은 수도자 양성에 필요한 건물이 부족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80,000,000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건물을 지어주시겠습니까? 🙏



가르멜 수도원의 '혼인 잔치' 중신서원과 유기서원



관상 기도: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침묵하는 시간



수업 중인 수련자들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을 쬐니다

프라하의 '성모님의 비둘기 집'에서 온 도움 요청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도 '성모님의 비둘기 집'이 있습니다. 이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자신이 세운 수도원을 부르던 이름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9명의 가르멜 여성 수도자들과 23세의 청원자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성 수도자들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발발하기 직전인 2019년, 이들은 도시 외곽의 새로운 수도원 건물로 이사했는데,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수도자들이 지금까지 비좁은 환경에서 지냈고 대도시의 소음에 방해를 받았던 터라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사이에 특히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가스 비용만 3배나 올랐지요. 관상 수도자들로서는 이미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기꺼운 도움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도원 건축을 위한 고된 노동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시편 96,1)

더 다급하게 우리의 지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10,000,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도자들은 도움을 주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당신 이를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감사 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시편 5,12)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

인도 동부 란치에 있는 성 안나 딸 수도회는 수많은 성소자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명의 젊은 수련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차별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수련장인 프라브하 살소 수녀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혈통 덕분에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방식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지요. 그래서 모든 이와 쉽게 어울려 지낼 수 있어요. 우리는 서민들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고통을 함께 나누며 이들과 동행합니다.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수도회는 1897년에 네 명의 젊은 여성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이들은 지역 부족에 속하는 소위 '원주민'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여성 수도자들은 생활 방식과 복장을 지역 관습에 맞추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종교 박해로 종종 추방되므로, 부족 사람들 걸을 지킬 현지 수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수도회가 그리스도를 위한 강력한 증거자로 살게 된 것은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우리 수도원 창립자들의 희생정신 덕분입니다. 초기 수도자들은 맨발로 가파른 산을 오르고, 계곡과 울창한 정글과 숲을 지나고 강을 건너면서 야생동물도 마주해야 했지요. 초기 수도자들은 교육을 통해 어린이, 젊은이, 특히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프라브하 수녀의 설명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여성 수도자들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돕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하느님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에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60명의 젊은 여성들의 양성비로 38,000,000원을 지원합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수련자들을 도와주시요! 🙏

오직 하느님의 사랑만을 위해 일합니다

'예수님 말씀과 희생의 선교 수녀회' 소속으로 쿠바의 과시말에서 활동 중인 수도자 네 명이 8개 공동체의 신자들 9,00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수도회의 사명은 사제가 거의 없는 외딴 지역에서 가장 힘겹게 사는 신자들을 돕는 일입니다.

베로니카 수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가난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절하고 쾌활합니다. 이들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경험하길 갈망하며, 또 항상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알고 싶어 하지요. 역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일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 은총과 힘을 주님께 청합니다."

오직 하느님의 사랑만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 수도자들을 위해 올해도 이들의 생활비로 6,000,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함께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



베냉: 제병을 만드는 젊은 수련자



크로아티아: 제병을 만드는 정밀한 작업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젊은 여성 수도자들



큰 기쁨: 수도원을 방문한 빈코 폴리치 추기경

제병 제작 성찬례를 위한 숨은 노고

“주님, 저희 봉사자들과 주님의 거룩한 백성은 ... 아버지께서 베풀어주시는 선물 가운데서 이 깨끗한 제물, 거룩한 제물, 흠 없는 제물, 영원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존엄한 대전에 봉헌하나이다.” 감사 기도 제1 양식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과 보배로운 피로 변한 빵과 포도주를 특별한 경외심을 갖고 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사에 쓰이는 제병은 대개 여성 수도자들의 침묵과 기도 속에 만들어집니다. 이 활동은 관상과 봉쇄의 수도원 생활과 이상적으로 조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에도 중요한 노고이기도 합니다. 본당에는 교회 생활의 원천이자 중심인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해 제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병 제작은 손가락 감각과 함께 세심한 주의가 많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얇은 제병이 깨지면 안 되며, 일정한 견고함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지요. 기술 장비 덕분에 제병 제작 단계가 일부 단순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의 장비가 아주 오래되어서 작업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가끔은 전선 결함으로 인해 여성 수도자들이 감전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나이지리아 우모지의 베네딕도회 여성 수도자들은 작업을 완수하려면 종종 휴식, 식사, 심지어 성무일도 시간까지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병 제작 기계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수도원에 제병 제작 기계 80대를 지원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1975년 과테말라에서 설립된 ‘성체 선교 수녀회’도 최근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이 수도자들은 수도회 고유 카리스마와 설립 근거에 따라 예수님이 성체성사에서 더욱더 사랑받으실 수 있도록 특별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체조배에도 공을 들입니다.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과 어르신들도 돌봅니다. 솔로라에 있는 본원에서는 두 여성 수도자가 공동체의 생계를 담당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제병 10,000개를 제작합니다. 오래된 기계로는 어려운 작업이지요. 그러나 수요는 많아서 중미 국가의 여러 교구에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여성 수도자들은 제병을 하루에 25,000개, 즉 한 달에 50만 개를 제작할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여성 수도자들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고, 지역 교회는 미사 거행에 필요한 제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찬례를 위해 남모르게 수고하는 여성 수도자들을 도움시다! 🙏

콩고민주공화국: 높은 제병 수요



브레스토프스코에 위치한 성 클라라 수도회는 올해 수도원 창립 35주년을 맞이합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 덕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유일한 성 클라라 수도회가 그들의 영성으로 젊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수도원 총원장 히야친타 바티니치는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진행된 보스니아 전쟁 중에도 수도원이 피해를 보지 않았고, 여성 수도자들이 ‘잠시나마’ 수도원을 떠나지 않아도 된 것을 기적으로 여깁니다. 성 클라라 수도회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자, 많은 주민도 안전감을 느끼면서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녀원장은 이 모든 것이 성녀 클라라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전구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수도회 설립자인 클라라의 삶이 보여준 한 일화가 떠오릅니다. 1240년에 사라센족이 아시시를 침공하면서 위협적으로 수도원으로 접근해오자, 성녀 클라라는 성체를 높이 든 채 기도를 바치며 주님 안으로 피신했고, 침입자들은 달아났습니다.

성 클라라 수도회는 엄격한 기도와 참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봉쇄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극도로 가난하게 생활하면서 긴급 상황에서만 수도원을 벗어납니다. 히야친타 수녀가 설명합니다. “우리 삶의 원천이자 힘은 성찬례, 성무일도, 개인 기도와 성사입니다. 매일 우리는 교회, 세상의 고난, 평화, 특히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를 위해 성체조배를 합니다.” 여성 수도자들은 심지어 자정에 기도하기 위해 수면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힘든 삶이지만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여성 수도자들 12명 중에서 7명이 40세 미만입니다. 게다가 청원자도 현재 2명 있습니다. 히야친타 수녀의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삶의 방식으로 부르실 때는 이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는 은총도 함께 주십니다. 성소가 있는 사람은 봉쇄 생활에서 제약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자유를 느낍니다.”

“오늘날 더 많은 젊은이가 이런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따르길 원하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세상으로부터의 은둔, 침묵, 일과 기도의 조화로운 삶에 매력을 느낍니다. 세상에서의 분주한 생활과 과도한 소음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하느님과 더 강한 유대를 느낍니다.”

여성 수도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67세의 수도원 총원장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합니다. “봉쇄 수도원의 생활은 의미와 기쁨이 가득한 삶이며, 무엇보다 하늘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밤낮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려는 브레스토프스코의 성 클라라 수도원을 정기적으로 후원합니다. 이 수도회에 창립 기념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

하늘나라를 위한 삶 클라라 수도회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를 열렬히 따르는 사람으로서, 성녀 테레사의 고민과 기쁨에 공감합니다. 성녀 테레사의 소망 중에는 당시 사이공으로 불렸던 베트남 호찌민의 가르멜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성녀 테레사는 선교사를 자원했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결국 소망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녀 테레사가 '선교사업의 수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의 마음을 간직한 채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녀 테레사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전

세계 관상 수도원에서는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바치고 있습니다. ACN은 인간적 관점에서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전쟁과 폭력 상황에 부딪힐 때, 종종 이런 '기도의 원동력'에 의지해왔습니다. 우리는 나이지리아, 시리아, 미얀마 등 많은 국가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여성 수도자들의 기도에 맡기고 의탁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처럼 봉쇄 수도원 안에서 이런 강한 선교적 마음을 간직한 '선교사들'로부터 계속 영감을 얻도록 합시다.

ACN 수석대표
레지나 린치 Regina Lynch



부활의 기쁨을 몽골 가톨릭교회에 몽골어 가톨릭 성경으로 나누어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19-20)



울란바토르 지목구장
조르조 마렌고 추기경

몽골 가톨릭교회에는 몽골어 가톨릭 성경이 없습니다. 이들은 개신교 성서 단체에서 번역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버전 성경은 제 2경전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모국어인 몽골어 가톨릭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교황청 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ACN은 2024년 4월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몽골 가톨릭교회에 가톨릭 성경 번역비(10만 달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변방으로 향하듯, 우리도 경계, 변방을 살피야 합니다. 몽골 가톨릭교회 신자들이 몽골어 가톨릭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몽골 가톨릭교회 소개

- 1992년 교황청과 외교 관계 수립,
- 현재 몽골 교회는 교구 이전 단계인 지목구(Praefectura Apostolica)
- 한반도의 7배 면적
- 인구 338만명
- 본당 8개
- 가톨릭신자 1400명
이들은 그 나라의 1세대 혹은 2세대 그리스도인이다.



후원 방법

후원계좌: 농협 317-0016-3132-21
예금주: (사)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